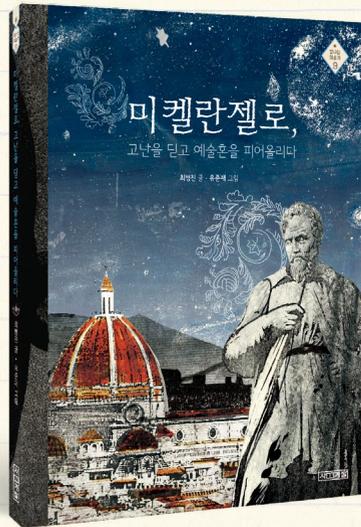


미켈란젤로, 고난을 딛고 예술혼을 피어올리다



최병진 글 | 유준재 그림 | 160쪽

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? 세계적인 거장답게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의 삶은 그와 반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. 권력자들의 변덕과 횡포, 동료 예술가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를 늘 힘들게 했다. 하지만 그는 곳곳이 이겨 냈고,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섰다. 그가 깎아 낸 조각품을 들여다보면 놀라움 그 자체다. 단단한 돌을 깎아 내 그림보다 더 생생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.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면서 평면적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예술의 한 장르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.

(학습 목표)

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조각가는 더럽고 힘든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. 그들은 추우나 더우나 끌과 망치를 들고 돌을 깎고 다듬었다. 그에 견주어 화가는 방 안에 예쁜 모델을 앉혀 놓고 따뜻한 차와 시를 읽으며 그림을 그렸다. 물론 화가라고 해서 조각가보다 더 나은 직업은 아니었다. 조각가나 화가나 거의 비슷한 처지였다. 화가는 평면에 그림을 그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. 그는 중심인물 옆과 뒤로 배경을 그려 인물의 마음 상태와 처지를 나타낼 수 있다. 그에 견주어 조각가는 배경을 나타낼 수 없다. 그 대신 조각가는 인물의 앞과 뒤와 옆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. 조각가는 화가와 달리 인물의 몸짓, 손짓, 발짓, 눈빛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.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공부하면서 조각과 회화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알아보자.

-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 가문과 예술가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본다.
-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<바쿠스>, <피에타>, <다윗>을 공부해 보자.
-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회화 작품을 살펴 보면서, 회화와 조각의 차이를 알아 본다.



(독전 활동)

미켈란젤로가 23살 때 조각한 초기 작품 <바쿠스> 공부하기

→ 바쿠스의 머리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보여 준 다음 아이들에게 바쿠스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묻는다. 그런 다음 머리카락이 뭉쳐있어 보이는지 묻는다.

→ 컵과 수건을 준비한 다음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다. 큰 아이는 컵을 오른손으로 들고, 왼손으로는 수건을 쥐고 바쿠스처럼 자세를 잡게 하고, 작은 아이는 숲의 신 사티로스 자세를 하게 한다. 사티로스 또한 수건을 포도송이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자세를 잡는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<바쿠스> 조각상의 사티로스처럼 수건을 포도송이처럼 생각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것을 뜯어 먹는 시늉을 해야 한다.

→ 그런 다음 지금 바쿠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큰 아이에게 묻는다.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바쿠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.

▶ 선생님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<바쿠스>와 <다윗> 이미지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낸다. 두 사진을 하나의 이미지로 편집하여 보여 준다. 바쿠스와 다윗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발표하게 한다. 눈 밝은 아이들은 바쿠스의 '술 배'를 바로 말할 것이다. 또 어떤 아이는 술에 취해 해롱해롱한 바쿠스의 눈을 말하기도 할 것이다. 바쿠스의 몸은 다윗과 달리 술에 절어 좀 부어 있다고 보면 된다. 또한 바쿠스의 자세는 왼발에 무게중심이 가 있고, 몸은 뒤로 살짝 젖혀진 모습이다.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. 아이들에게 미켈란젤로가 바쿠스와 다윗의 몸을 어떻게 다르게 조각했는지 서로 말하게 한다.

▶ 바쿠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또는 포도주의 신이다. 그리스 신화에서는 '디오니소스'라 한다. 바쿠스는 멀리 동방에서 표범이 끄는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한다. 바쿠스가 왼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표범 가죽으로 짠 자루다. 그 옆에 숲의 신 사티로스가 아주 행복한 얼굴로 포도를 따 먹고 있다. 바쿠스는 포도송이가 달린 덩굴로 짠 관을 쓰고 있다. 사티로스는 반인반수의 신이다. 다시 말해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짐승의 형상이다. 사티로스 머리에는 염소 뿔이 나 있고, 귀 또한 염소 귀를 닮았고, 다리는 염소 다리이다.



<바쿠스> 1496~1497년

(독후 활동)

미켈란젤로의 <피에타> 공부하기

→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다. 큰 아이는 마리아를, 작은 아이는 예수가 되어 <피에타> 자세를 잡게 해 본다.

→ 자세를 잡다 보면 <피에타>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다. 예수의 윗몸이 살짝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. 이때 선생님은 마리아 오른쪽 아래에 걸상을 놓고 발을 짚게 한다. <피에타> 왼쪽 아래를 보면 마리아 오른쪽 아래에도 받침돌이 있다.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몸짓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.

→ 여기서 마리아 노릇을 하는 아이는 왼손을 꼭 <피에타>처럼 하게 해야 한다. 마리아는 왼손으로 예수의 허벅지를 잡지 않고 손바닥을 펴서 살짝 들고 있다. 이 손짓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내는 것, 이것이 이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.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.

▶ 선생님은 우선 '피에타'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설명해 줘야 한다. '피에타'는 이탈리아 말로 경건, 고뇌를 뜻한다. 삼가는 마음으로 성스러운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. 미술에서 '피에타'는 독일 말 '베스퍼'에서 온 말인데, 그 뜻은 '저녁 무렵'을 말한다. 수도사들은 낮과 밤이 바뀌는 저녁 무렵에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찢어지는 가슴을 떠올렸다고 한다.

▶ 이 성모자 상은 미켈란젤로가 27살 때 완성한 작품이다. 미켈란젤로의 <피에타>가 그리고 있는 몸짓은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장면이다. 예수 오른손 등을 보면 못 박힌 곳을 볼 수 있다. 학생들에게 마리아의 왼발 끝을 확대해 보여 준다.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이 조각은 오른쪽 아래가 아주 허전했을 것이다. 이곳에 <피에타>의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고 보면 된다. 예수의 왼발도 아주 자연스럽다. 이것도 마리아의 오른발처럼 발뒤꿈치를 받쳐 주는 나뭇가지 모양 돌을 놓았다. 이렇게 해서 살짝 들려 있게 한 것이다.



<피에타> 1499년